# 상대방에게 맞추어 내가 최적화되기

## (고린도전서 9:19~27)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상대방에게 맞추어 내가 최적화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추어 내가 최적화되기"

사람은 본능적으로 만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최적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과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이루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최적화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4~27절을 부분을 보면 달음질이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이 달음질이란 고린도에서 올림픽 경기처럼 2년마다 열렸던 이스티미안 경기를 의미합니다. 이스티미안 경기는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메안 경기와 더불어 그리스의 4대 경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스티미안 경기에 나가 달리는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자신도 그렇게 했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승리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적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절제

를 하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적화되기 위한 절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게 맞추어주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킬 때에 승리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꾸로 상대방에게 내가 최적화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였고 그 절제 속에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의 포기를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듯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절제한 이유는 승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승리란 지금 눈앞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최적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적화되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말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아닙니다. 이 말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고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족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율법으로는 귀족층 바리새인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유자였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자면 그 사람이 주인이고 자신은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같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장소를 피하기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였기에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했던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 일단 그 사람을 위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시간과 사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위주의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일이 생기기를 생각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기준에서 볼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일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얻을 좋음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최적화되기를 통해 나타날 수 있었던 결과는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좋다고 여기는 것과 사도 바울이 상대방에게 좋다고 여기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마치 종이 된 자세로 상대방 위주로 진짜 유익이 될 만한 일을 생각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최적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본문에서 네 가지 예를 들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이라고 하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였고,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최적화시킨 모습들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를 19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밝힙니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연예계의 가수나 배우들이 많은 팬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혹은 정치인이나 스타 강사 혹은 스타 행세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지지자들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SNS를 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버들이 팔로우를 끌어 모으려 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뜻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23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복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곧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었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었고,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 있었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후에 이전에 몰랐던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로 주어지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거나 가지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게 여겨지고, 가지면 좋겠고, 누리면 좋겠고, 이루면 좋겠다는 그것을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좋음과 비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비하자면 똥이라고 여겨진다면 가장 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나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느끼듯 마음은 하나님의 있음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좋음만을 욕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완전히 똥과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음에 비하며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계속 나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설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어도 나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읽지 않은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남에게 전하는 것과 남에게 전한 복음을 나에게 전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을 쳐 복종하게 해서 남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이기

도 하였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둘 다 있어야만 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도 복음을 듣는 것과 들은 복음을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기에 반드시 둘 다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과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떨어져나가게 되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불합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주화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정해진 무게에 도달하지 못한 불량품은 골라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때의 단어를 사용하여 믿음에서 나타나야 할 두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였으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던 방식도 십자가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한 후에 자신에게 십자가를 전하지 않음으로써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내가 남에게 들었으면 그 들은 십자가를 내가 나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가 없으면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때에 자신을 최적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애썼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얻고자 종과 같이 되었던 구체적인 예를 네 차례에 걸쳐 설명합니다. 얻고자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느끼는 최고로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 안으로 유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또 스스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음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맞추어서 자신을 최적화시켰던 것입니다. 또 율법 없는 자를 만났을 때에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함은 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자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이란 몸을 움직여 하는 행동의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십자가 생활화는 몸이 아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생활화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만났을 때에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인간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적 배려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정적인 인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일관된 소신이나 원칙 없이 행동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쁘게 보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환경적 조건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행동의 원칙을 찾아내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주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몸 색깔을 다양하게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에 대해 자신을 최적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를 최적화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있는 사람처럼,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처럼 된다는 것은 그와 똑같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 맞추어진 최적화의 상태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그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최적화가 십자가 생활화와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로서 받아야 할 생계비에 대한 권리 포기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논의를 더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은 권리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종이 되는 것은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고 그 사람을 위주로 좋은 일을 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처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추어 최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초인적인 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몸이 세상에 있고 그 몸에 세상으로부터 신분과 지위가 주어집니다. 하다못해 아빠라면 자녀에 대해, 아내라면 남편에 대해 자유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국민이라면 나라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십자가는 몸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유와 권리까지 죽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상대방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몸에 주어진 신분과 지위에서 비롯된 자유와 권리에 대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은 직원을 대할 때에 행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면 사장님은 직원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곧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주어진 신분과 지위도 죽어야 하고 신분과 지위에 따라 주어진 자유와 권리도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마주할 때에는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마주할 때에는 유대인처럼 되었다고 하였고, 율법 있는 자를 마주할 때에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처럼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나를 최적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신분과 지위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권리와 행동원칙과 경험과 지식과 같은 것들을 지워서 마음을 백색으로 만듭니다. 백색이 된 마음 상태에서는 마치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신분과 지위와 그에 따라 주어지는 자유와 권리와 그동안 살면서 경험한 지식과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지워져 백색의 마음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주시도록 되어있고 오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면 백색의 마음도 될 수 없기에 성령도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사람을 상대할 때에 여전히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권리나 자유를 주장하며 상대방이 내게 맞추어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준비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생각이 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주하는 상대방을 지으신 조물주이십니다. 상대방을 보시고 아시고 이끄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상대방에 대해 갖고 계신 모든 생각을 복사한 듯이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최적화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초인적인 배려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초인적인 배려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십자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만날 때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마치 유대인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백색의 마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백색의 마음에 유대인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번 휴무 기간에 방학을 맞이한 아들과 집사람과 함께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순신 장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백의종군(白衣從軍)입니다. 당시 조선군에는 상하 종속적인 지휘체계가 있었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로부터 말단의 직급까지 주어진 의복이 있습니다. 백의종군은 상하직급에서 아무런 직급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평민과 똑같은 하얀색 옷을 입고 어떤 직급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승리는 마치 이러한 백의종군을 연상시킵니다. 백의종군하여 왜군으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내신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십자가에서 백색의 마음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의 승리는 최적화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만날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편이라는 신분에서 권리와 자유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남편으로서 갖는 욕구를 아내에게 요구하여서 관철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아내를 마주하는 동안에 내가 최적화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사도로서 요구할 수 있는 생계비에 대한 권리의 포기를 상이고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결혼이 좋은 이유는 이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좋은 이유는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마주했을 때에 남편이라는 신분에서 주어지는 권리가 좋은 것은 아내 앞에서 남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 아내 앞에서 남편의 권리가 포기됩니다. 백의종군(白衣從軍)이 아니라 백심종군(白心從軍)을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여 왜군을 타파하고 승리한 것처럼 십자가로 백심종군하면 나를 모든 사람 앞에서 최적화함으로써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내 마음에서 모든 지위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이렇게 백심종군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사람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최적화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로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는 말씀에 대한 보충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모습에 맞게 최적화된다고 하니 얼핏 정해진 방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타인에게 나를 관철시키고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하여 맞추어 주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 백심종군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백심종군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있음으로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주어진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를 통해 백색으로 돌려버릴 때에 지금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사람만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하얀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백심종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주고자 하는 최고로 좋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실 때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게 최적화되셔서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했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생애 기간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조차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의 승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최적화되는 것이 바로 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시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여 왜군을 타파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로 백심종군하여 마귀의 계략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나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주장과 요구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백심종군하여 이 계략을 타파하고 상대방에게 최적화되어 그에게 내가 느끼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맞추어진 나의 최적화를 이루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심종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